

인 사 말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받고 있으며 청안한 덕화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단은 큰스님들의 원력과 공심이 이룬 공덕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종단 쇄신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풀어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속에 종단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경청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심정으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등기를 총괄하는 대법원이 앞으로 사찰재산의 소유와 처분에 있어 종단의 승인을 등기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취지의 올바름과 정당함을 여러차례 요청하고 설명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며, 종단 재산의 망실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망실재산에 대한 안타까움은 통합종단 출범이후 50여년 동안 어느 때고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법과 우리종단 종법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것이였기에 이를 악용한 일부 스님들이 사찰관리의 부실함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오점을 남겨오던 현안이기도 했습니다.

자성과 쇄신을 제안하여 실천해 나가고, 급기야 작년 종단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했던 쇄신의 절실함에 부응하여 이루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재정투명화라는 그간의 사회의 걱정을 치유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법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물론 관련

현안에 밝은 중진스님들과 심도있고 오랜동안 논의를 진행한 결과물입니다. 종단 소속임을 명백히 하고 종단 구성원으로서 예외없이 정체성이 한결같음을 확인하며, 제한받던 권리를 회복하는 긍정의 성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는 결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안들은 일정 기간을 종법으로 정하여 현재 종회와 집행부가 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화합의 조치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관련 사안에 대한 해안이 깊은 원로스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교구본사가 종단의 현안은 물론 종단 운영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논의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단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교구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안하고 본사의 위상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교구본사의 실제적 권한과 역할이 단계별로 정립되었으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구본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집행하면서 종단운영의 효율을 높이게 되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선대의 스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발원과 원력을 계승한 것이면서도 이제 가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절마다 생명을 알리는 자연의 섭리처럼 쇄신하고자 다짐했던 종단의 근황도 봄소식과 함께 결실을 하나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로스님들의 건강함과 덕화로 종단운영의 조언과 격려를 경청하고 종단을 위하는 뜻을 잘 받아 소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